

**The Reunified Korea Economy**

月刊

# 統一經濟

1998. 9 통권 제45호

現代經濟研究院

# 統一經濟

9  
1998  
제45호

편집자의 글

민간 경험 중층화로 상호 신뢰 기반 구축을 .....3

포커스

북한의 헌법 개정과 권력 구조 개편 분석 • 고유환 .....4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배경과 파장 • 정영태 • 유호열 .....12

특별기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결성을 통해 본  
해방후 민간 통일 운동과 정부의 통일 정책 • 이장희 .....18

특 집

남북 관광 교류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나갈 것인가?  
남북 관광 사업의 방향과 기대 효과 • 이장춘 .....36

북한의 관광 상품 개발 현황과 과제 • 윤창운 .....42

금강산 관광에 대한 수익성 분석과 전망 • 이기왕 .....52

경협동향

금강산 유람선 출항 기대 속의 남북 경험 움직임 • 홍순직 .....61

논 단

통일에 따른 북한내 산업 입지 개발 추진 방안 • 박영철 .....68

북한의 주요 노동 규정과 노무 관리 전략 • 선한승 .....89

북한경제

대의 경제 관계: 최근 북한·중국 경제 관계의 현황과 특성 • 박정동 • 오강수 .....101

통 권 제45호  
등록번호 라-6925  
등록일자 1994년 12월 2일  
발행일자 1998년 9월 17일  
편집 및 발행인 김중운  
편집위원 정순원(위원장)  
김정근 유병규  
김선덕 홍순직  
류재현 이태열  
박흥진 황동언  
편집주간 이태실  
제작주간 심재철  
편집교열 장은숙  
발행처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78  
대표전화 (02)724-4114  
F A X (02)730-1770  
인쇄 서울컴퓨터인쇄사  
대표전화 (02)636-0556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모든 내용은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는 무단 전재와 역재를 금합니다.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필자의 개인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 민간 경험 중층화로 상호 신뢰 기반 구축을

1998

대금강호가 출항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천만 이산 가족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금강산 유람선의 순항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관광 사업이 아니다. 민족의 통일 염원을 싣고 떠나는 傳令의 역할을 할 것이며, 특히 출범 7 개월을 맞은 새정부의 햇볕 정책에 대한 첫 가지적 성과물이라는 데 큰 뜻이 있다. 게다가 이 사업의 성공 여부가 향후 본격적인 남북 경험의 가능자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남북한 관광 교류 사업을 특집으로 다루었다. 남북 관광 교류 사업의 추진 방향과 기대 효과, 북한의 관광 상품 개발 현황과 협력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논단에서는 금강산 유람선의 첫 출항과 제2차 나진·선봉투자설명회(9.24~26) 일정이 가까워지면서 향후 對북한 경험 사업 추진시 알아두어야 할 참고 자료를 실었다. 북한내 공단 건설 사업을 비롯하여, 북한 기업과 합영·합작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대비하여 북한의 외국인 투자 기업의 노동 규정과 합영·합작법 등에 명시된 노동 관리 규정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김정일 당 총비서는 국가 주석직 승계 예상을 깨고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되었다. 포커스에서는 제10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 결과와 향후 북한의 권력 구조 개편 향방을 소상히 분석하였고,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긴장시킨 북한 인공위성(?) 발사의 배경과 파장을 살펴보았다.

지금 새정부의 햇볕 정책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의 반복된 냉·온탕식의 남북 교류 협력 과정에서 많은 역사적 과오를 체험해왔다. 북한도 이번의 권력 구조 개편에서 대외 무역과 경제 분야에 실무형의 전문 테크노크라트를 전면에 기용했는데, 實事求是의 민간 차원의 남북 경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새정부는 비록 인내심을 요구하는 대내외 여건의 변화가 있어도 정경 분리 원칙을 일관되게 추진해주어야 한다. 민간 부문의 경험 원활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하루 속히 구비해야 한다. 민간 부문간 경험 중층화를 바탕으로 경험 관계가 당국자간 정상 관계로 승화될 수 있게끔 남북한 상호 신뢰 기반을 구축해나가야 한다.

1998년 9월

편집자